

## 주요 내용

### 1. [한국인의 행복도]

2022년 한국인 '행복하다' 57%!

###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장애인 가족 돌봄자 실태

2) OECD 국가의 암관련 지출/사망률 비교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2022년 한국인 ‘행복하다’ 57%!

UN의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의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36위)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2년 세계 12위로 경제대국이지만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지난 4월 국민여론조사 결과 우리나라민의 57%정도 만이 ‘행복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실제 돈, 소득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진다. 또,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도 ‘고정적 수입’은 주요 요소이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상 늘어도 더 행복하진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행하게도 사회적 취약 집단, 예컨대 저학력층, 저소득층, 노인, 불안정한 고용자의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교육적/경제적 취약집단은 행복에 있어서도 취약집단이다.

이번 넘버즈(149호)에서는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수준과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행복 취약 집단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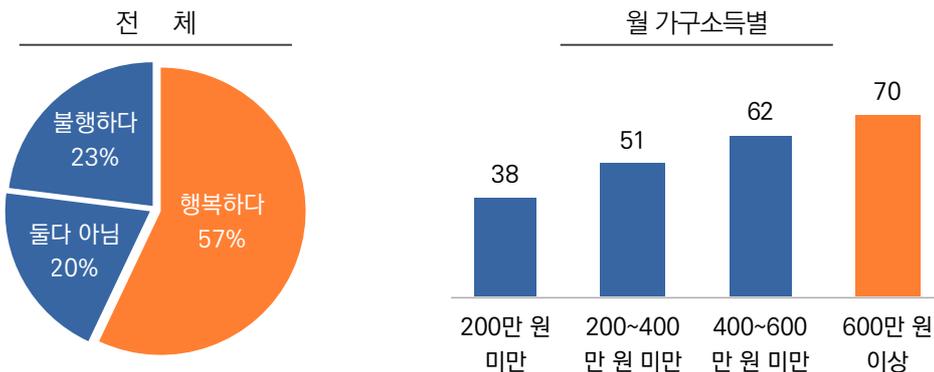


# 01

## 2022년 한국인, '행복하다' 57%

- ▶ 조사전문기관인 케이스탯에서 최근 발표(2022년 4월)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평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7%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23%로 응답됐다. 또,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는 답변은 20%로 나타났다.
- ▶ 월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이 38%였는데 반해, '소득 600만 원 이상'은 70%로 조사돼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림] 주관적 행복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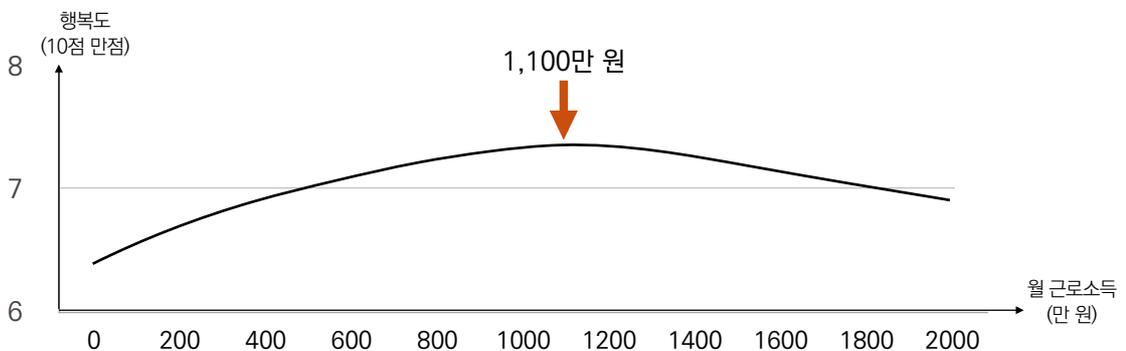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케이스탯 리포트 49호,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2022.04.28.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8 명, 온라인조사, 2022.04.08.-04.10)

### ◎ 월 근로소득 1,100만 원일 때 행복도 최대! 그 이상인 경우 오히려 감소!

- ▶ 앞에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행복하다는 응답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렇다면 행복도는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꾸준히 높아지는 것일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행복지수와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행복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약 1,100만 원까지는 소득 증가가 행복 증대로 이어지지만, 그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근로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전체 근로소득자 기준)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자 고혜진 부연구위원, 정해식 연구위원),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근로시간과 근로소득 간의 상호성을 반영하여', 2022.03.11. (근로소득이 있는 3,636명, 2020.06.23.-07.21)

\*\*Note : '2020년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하여, 이 중 근로소득이 있는 3,636명 을 추려내 '근로시간'과 소득, 행복 간의 관계를 재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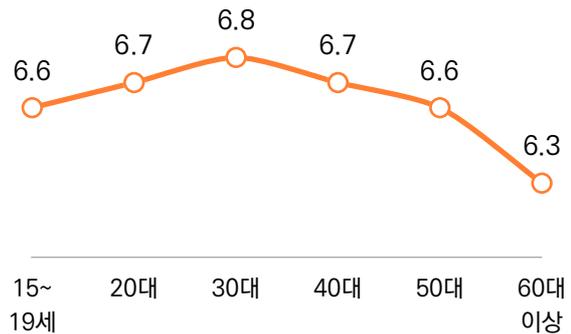
## ◎ 한국인의 행복도, 연령별 역 U자형!

- ▶ 이번에는 국민들의 행복도를 각 계층·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전국의 일반국민 17,000 명이라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에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이 조사는 주관적인 행복도를 0점부터 10점까지 측정한 것으로, 먼저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평균 6.8점으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은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라 40~50대까지 점차 행복지수가 낮아지다가 다시 회복하는 U 자형 커브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역 U자형을 보이는 게 특징적이다.

[그림] 전반적 행복감 (0~10점, 평균점수)



[그림] 연령별 전반적 행복감 (점)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국가미래전략 insight 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2022.02.07. (전국 8천 가구 내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약 17,000 명, 202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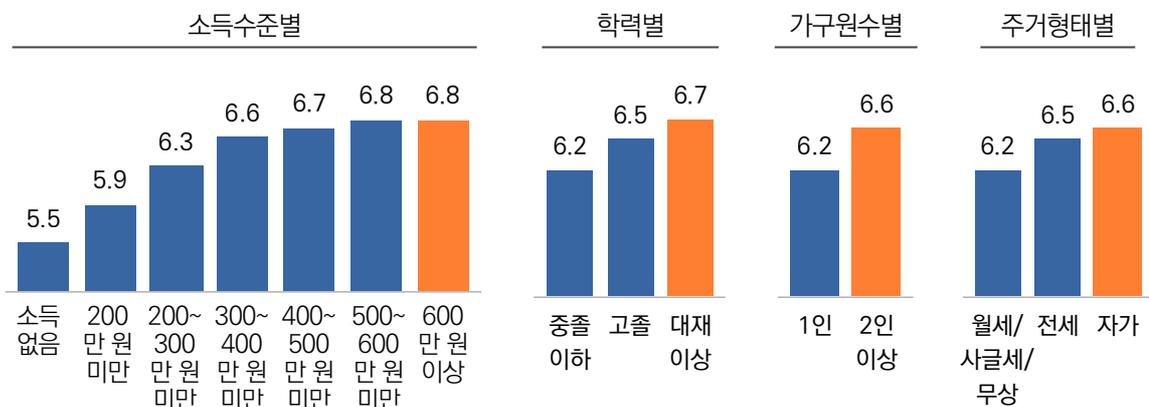
# 02

## 행복 취약집단

### → 저소득, 저학력, 60대 이상, 1인가구, 월세거주자!

- ▶ 각 계층별 평균 행복도를 보면,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가구원수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집단(6.2점)이 2인 이상 가구 집단(6.6점)보다 전반적 행복감이 낮았고, 주거 형태별로 월세/사글세/무상 집단이 자가/전세 집단보다 낮았다.
- ▶ 연령별로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가면서 행복도가 하락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 ▶ 종합해보면 사회·교육·경제적 취약집단의 경우 전반적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그림] 전반적 행복감 (0~10점, 계층별, 평균 점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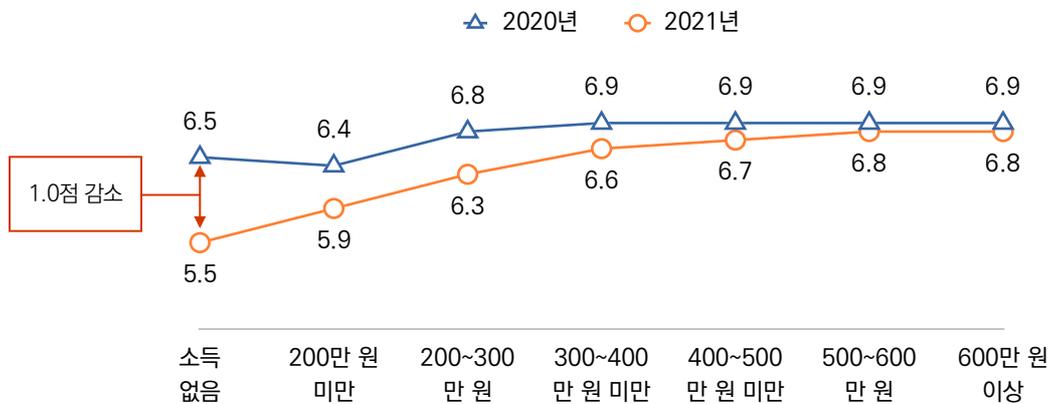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국가미래전략 insight 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2022.02.07. (전국 8천 가구 내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약 17,000 명, 2021.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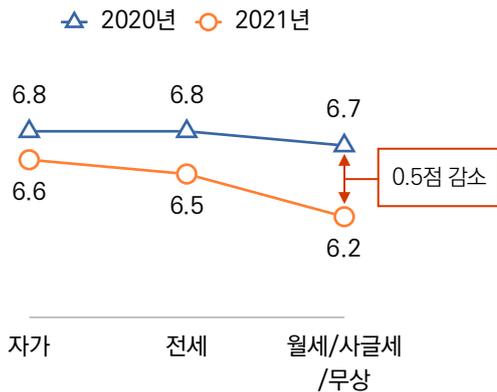
## ◎ 행복 불평등 심화 : 코로나 이후 행복 취약 집단의 행복도 더 크게 ‘감소’!

- ▶ 행복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집단은 전년도 대비 행복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행복에 대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월 600만 원 이상’ 집단은 전반적 행복감이 평균 0.1점 감소한 데 반해, ‘소득 없음’ 집단은 평균 1.0점 감소로 무려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월세/사글세/무상 집단이 평균 0.5점 감소하며 자가, 전세집단에 비해 큰 감소폭을 보였다.
- ▶ 또,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집단이 전년 대비 평균 0.1점 감소폭을, ‘임시/일용근로자’ 집단이 평균 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적 관계 위축을 가져온 코로나19가 ‘사회적 취약 집단’, 예컨대 저학력층, 저소득층, 노인, 불안정 고용자, 세입자, 기초수급자 등의 행복 수준을 낮추고, 행복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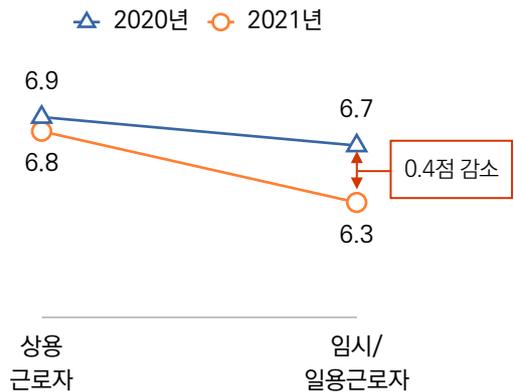
[그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 차이 (0~10점, 평균점수, 점)



[그림] ‘주거형태’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 차이 (0~10점, 평균점수, 점)



[그림] ‘고용형태’에 따른 전반적 행복감 차이 (0~10점, 평균점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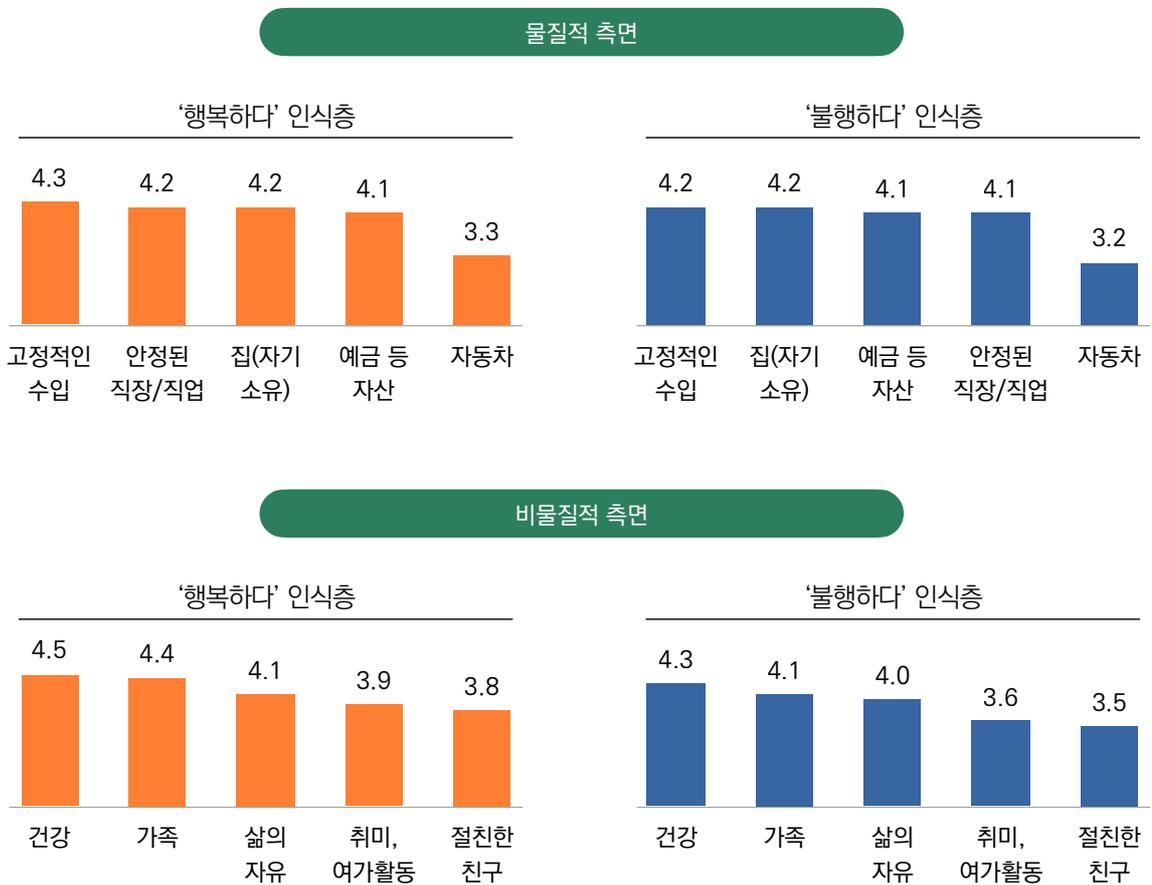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회미래연구원(국가미래전략 insight 38호),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주요 결과', 2022.02.07. (전국 8천 가구 내 15세 이상 전국 일반 국민 약 17,000명, 2021.08~10)

# 03

##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고정적 수입’과 ‘건강’!

- ▶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물질적 측면과 비물질적 측면 각각에 대해 행복과 불행에 미치는 영향력(5점 척도, 1점:매우 영향이 적다~ 5점:매우 영향이 크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 ▶ 물질적 측면 5가지 중에서는 행복과 불행 모두 ‘고정적인 수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4점 이상을 기록했다.
- ▶ 비물질적 측면에서는 건강, 가족, 삶의 자유 순으로 응답됐으며, 앞의 세 요소가 4점 이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종합해 보면 행복측, 불행측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정적 수입’과 ‘건강’임을 보여준다.

[그림]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매우+약간 영향을 미친다 비율, 5점 척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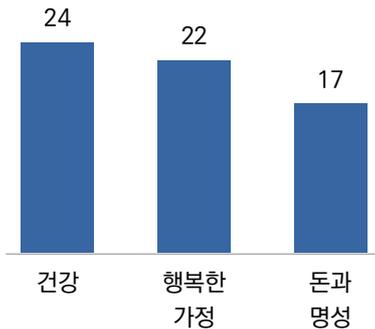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케이스탯 리포트 49호,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2022.04.28.(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8 명, 온라인조사, 2022.04.08.-04.10)

## ◎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30·40대 ‘행복한 가정’!

- ▶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건강’(24%)을 가장 많이 꼽았고, 행복한 가정(22%), 돈과 명성(17%) 순으로 조사됐다.
- ▶ 연령별 1위 응답을 보면, 20대는 ‘적성에 맞는 일’, 30대와 40대는 ‘행복한 가정’, 50대 이상은 ‘건강’이라 응답했다. 50대부터는 일보다는 건강에 대한 필요를 더 강하게 느껴 70대까지 ‘건강’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전체, 1순위, 상위 3위, %)



[표]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연령별, 1순위, 상위 3위)

연령	1위	2위	3위
20대	적성에 맞는 일 28%	행복한 가정 20%	돈과 명성 19%
30대	행복한 가정 29%	적성에 맞는 일 20%	돈과 명성 18%
40대	행복한 가정 23%	돈과 명성 19%	건강 19%
50대	건강 26%	행복한 가정 23%	돈과 명성 17%
60대	건강 39%	돈과 명성 17%	행복한 가정 15%
70대	건강 46%	행복한 가정 14%	돈과 명성 13%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해식 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2020.12. (전국 만 19세 이상~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5,050명, 면접조사, 2020.06.23.~0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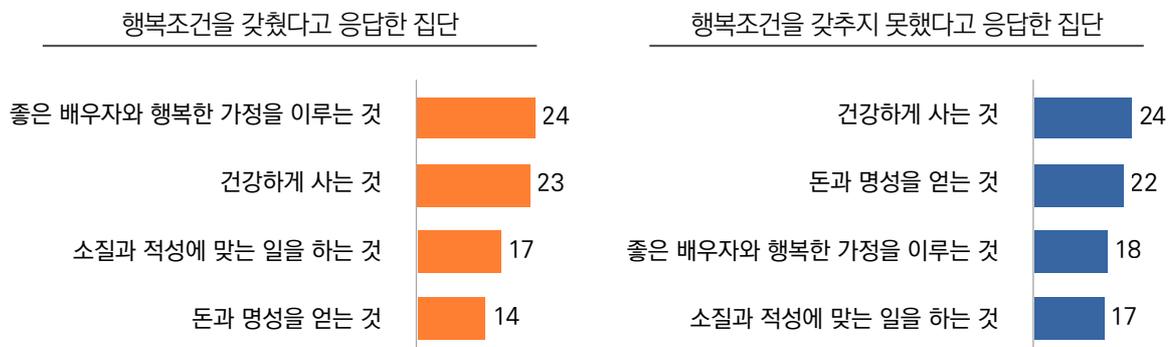
## ◎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 행복할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그룹 : ‘행복한 가정’과 ‘건강’

- 행복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룹 : ‘건강’과 ‘돈’

- ▶ 위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을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행복할 조건의 충족 여부’(행복할 수 있는 조건 갖춘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따라 ‘더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물어보았다.
- ▶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응답한 집단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1위로 꼽은 반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집단’은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을 가장 높게 꼽았다.

[그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 (행복할 조건 충족 여부별, 1순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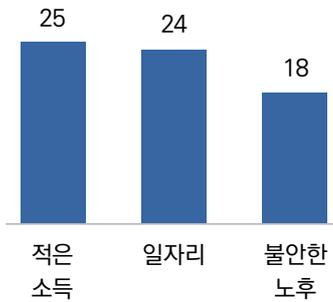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해식 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II’, 2020.12(전국 만 19세 이상~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5,050명, 면접조사, 2020.06.23.~07.21)

\*\*행복할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그렇지 않다’를 ‘갖추지 못했다’로, ‘매우+그렇다’를 ‘갖추었다’로 재분류함.

## ◎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저해 요소, 20대는 '일자리', 30-50대는 '적은 소득', 60대 이상은 '건강'!

- ▶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적은소득'(25%)과 '일자리'(24%)가 가장 높게 응답됐는데, 20대는 '일자리'가, 30-50대는 '적은 소득'이, 60대 이상 고령층은 '건강'이 각각 1위로 응답됐다.

[그림] 행복의 저해요소 (전체, %)



[표] 연령별 행복 저해 요인 (연령별)

연령	1위	2위	3위
20대	일자리 46%	적은 소득 28%	불안한 노후 10%
30대	적은 소득 28%	일자리 25%	불안한 노후 13%
40대	적은 소득 28%	일자리 20%	불안한 노후 15%
50대	적은 소득 23%	불안한 노후 22%	일자리 20%
60대	건강 30%	불안한 노후 24%	적은 소득 22%
70대	건강 30%	불안한 노후 28%	적은 소득 20%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정혜식 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II', 2020.12(전국 만 19세 이상-만 80세 미만 성인 남녀 5,050명, 면접조사, 2020.06.23.~07.21)

# 04

## 한국인의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36위!

- ▶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SDSN)의 '2022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146개국 중 한국의 행복지수는 59위로 중상위권에 속했으나,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정하면, 38개 회원국 가운데는 36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 ▶ 전 세계적으로 1위는 핀란드이고, 2위는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네덜란드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아프가니스탄(146위)으로 나타났다.
- ▶ OECD 38개국 중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와 터키뿐이었다.

[그림] OECD 국가별 세계행복지수 순위 (10점 만점, 점)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국가	행복지수
1. 핀란드	7.82	14. 독일	7.03	27. 에스토니아	6.34
2. 덴마크	7.64	15. 캐나다	7.03	28. 라트비아	6.18
3. 아이슬란드	7.56	16. 미국	6.98	29. 칠레	6.17
4. 스위스	7.51	17. 영국	6.94	30. 멕시코	6.13
5. 네덜란드	7.42	18. 체코	6.92	31. 폴란드	6.12
6. 룩셈부르크	7.40	19. 벨기에	6.81	32. 헝가리	6.09
7. 스웨덴	7.38	20. 프랑스	6.69	33. 일본	6.04
8. 노르웨이	7.37	21. 슬로베니아	6.63	34. 포르투갈	6.02
9. 이스라엘	7.36	22. 코스타리카	6.58	35. 그리스	5.95
10. 뉴질랜드	7.20	23. 스페인	6.48	36. 대한민국	5.94
11. 오스트리아	7.16	24. 이탈리아	6.47	37. 콜롬비아	5.78
12. 호주	7.16	25. 리투아니아	6.45	38. 터키	4.74
13. 아일랜드	7.04	26. 슬로바키아	6.39		

\*자료 출처 : 유엔 자문기구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SDSN), '2022 세계 행복보고서', 2022.03.18.

\*\*Note : 갤럽의 월드폴 조사를 기반으로 각 국가별 1,000명을 대상, 자신의 주관적 행복 수준을 0~10점까지 점수(캔트릴 사다리 설문)로 나타난 결과의 최근 3년치(2019~2021) 평균값임. 또 각국의 행복점수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1인당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 변수로 분석함.

\*\*\*Note : 본 자료는 전 세계 146개국 통계 자료 중 편의상 OECD 국가(38개국)를 기준으로 재분석한 것임

행복!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모두 나와 가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도는 매우 낮다. 2022년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5.94점으로 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라는 최하 위권을 기록할 정도였다.(8쪽) 3년 전인 2019년 행복지수는 6.7점으로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였다. (넘버즈 15호 3쪽) 3년 사이에 절대 점수와 상대적 순위 모두 더 낮아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감이 더 저하되었다.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이다. 행복은 욕구와 떼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욕구와 충족의 차이가 클수록 행복은 줄어든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생활 지침으로 삼았다. 비록 가난하지만 그것에 만족하고 도를 추구하는 것을 선비의 본분으로 여겼다. 유교의 '도'(道)란 천지만물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해 내는 근원이며, 우주를 지배하는 대조화의 이법(理法) 즉 진리(眞理)인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현재 한국인들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득'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안정적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 가정 생계, 자녀 교육, 문화 및 여가 생활, 주거 안정, 건강 관리 등등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국제통화기금의 2022년 4월 발표에 따르면 세계 12위이다. 세계적 경제 강국이라고 해도 손색없는데 행복 순위는 OECD국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돈이 생활의 안정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욕망의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는 돈에 과몰입되어 있는 사회이다. 사회학자 김덕영은 그의 책 '에리식톤 콤플렉스'(2019)의 서두에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광고, '이명박은 배

고됩니다!'를 예를 들면서 이 카피에 담겨진 우리의 과도한 자본주의적 욕망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김덕영은 에리식톤이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존재(에리식톤은 오만하고 불경스러운 부자(富者)로 아무리 먹어도 허기를 느끼는 저주를 받아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존재)를 비유하여 한국 자본주의 정신이 돈과 물질적 재화에 대한 무한한 욕망으로 가득차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무한한 욕망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다. 2002년 1월 한 광고가 사회적 반향을 크게 일으켰는데, 모델이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다른 카피없이 '여러분 모두 부자되세요~'라고만 외친 BC카드의 신년 TV 광고였다. 이 광고는 큰 히트를 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 사회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그대로 표현했다고 해서 언론에 소개될 정도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화제를 모았다.

돈에 대한 욕망은 기독교인이라고 다르지 않다. 한국 기독교를 비판할 때 기복주의적 신앙이라고 지적하는데, 기복주의적 신앙의 근본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자리잡고 있다. 성도들의 의식 내면에는 경제적 안정, 사업의 번창, 가족의 건강에 대한 추구가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경은 맘몬이 하나님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인지 촉구하고 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의 본질을 낱알이 드러내야 한다.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발견하는 것이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존 스토틀가 '제자도'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의 풍조를 반대하고 거역하며 '불순응'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할텐데, 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의 저항이 있더라도 말이다.

1.[장애인 가족 돌봄자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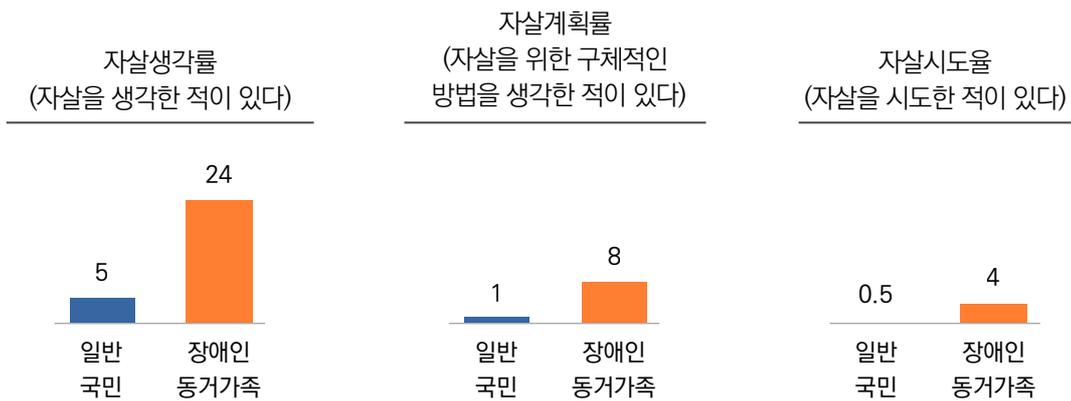
2.[OECD 국가의 암관련 지출/사망률 비교]



## 장애인 동거가족, 자살생각/자살시도율 일반인 대비 5-8배 높아!

- ▶ 지난 5월 23일 장애인 두 가족이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가정은 발달장애를 겪는 6살 아들을 돌보던 40대 엄마가 아들과 함께 투신하였고, 다른 한 가정은 30년 동안 뇌병변 장애로 누워서 생활하는 딸을 거의 혼자 돌보았던 엄마가 딸과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가 딸은 사망하고 엄마는 구급대에 의해 목숨을 건진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이 편견과 차별 속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 ▶ 장애인 가족의 힘겨운 삶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지난 4월에 서울시 복지재단이 발표한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실린 '고위험 장애인가족 특성 및 위험요인 인식조사 결과'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다.
- ▶ 장애인 동거가족의 '자살 시도/생각 여부'에 대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24%,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성인'\*\*의 자살생각률/자살시도율과 비교해 각각 5~8배 높은 수치이다.

[그림] '일반 국민(성인)'과 '장애인 동거가족' 자살 시도/생각 비교 (%)



\*자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2022.04.25. (서울시 등록 장애인가족 374명, 온라인 조사, 2021.08.10~08.31)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2021.07

## ◎ 장애인 가족 주돌봄자 34%, 우울·불안 느껴!

- ▶ 장애인 가족 주돌봄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우울·불안' 34%, '신체적 질환(암, 류마티스 등)' 14%로 조사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장애인 가족 주돌봄자 건강상태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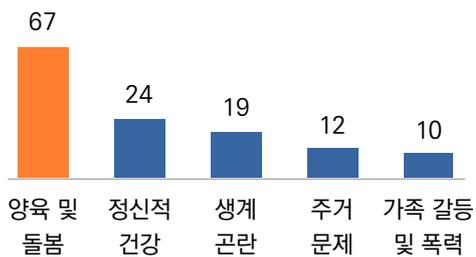


\*자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2022.04.25. (서울시 등록 장애인가족 374명, 온라인 조사, 2021.08.10~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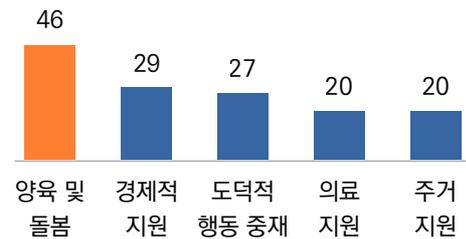
## ◎ 장애인 가족 주요 문제, '양육 및 돌봄'(67%) 가장 많이 꼽아!

- ▶ 주로 겪는 가족 문제로는 '양육 및 돌봄'이 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신적 건강' 24%, '생계곤란' 19%, '주거문제' 12%, '가족 갈등 및 폭력' 10% 순이었다.
- ▶ 이에 따른 '가족의 우선순위 욕구'를 살펴보면, '양육 및 돌봄'이 46%로 나타나 앞서 언급한 가족의 주요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경제적 지원', '도덕적 행동 중재', '의료지원', '주거지원'도 20%대의 응답률을 보였다.
- ▶ 교회 차원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둔 성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양육 및 돌봄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림] 장애인 가족에서 겪는 주요 문제  
(상위 5위, 중복응답, %)



[그림] 장애인 가족의 우선 순위 욕구  
(상위 5위, 중복응답, %)



\*자료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고위험 장애인가족 지원방안 연구', 2022.04.25(서울시 등록 장애인가족 213명, 사례수집 및 정량화 분석, 2021.05-07)  
\*\*기타, 무응답 제외



## OECD 고소득 22개국 중 한국 ‘암 사망률’ 가장 낮아

- ▶ 미국 예일대 의대와 바사 칼리지 연구진이 최근 OECD국가 중 고소득 22개 국가의 암 관련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각 국가의 암 사망률, 국민 1인당 총의료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암 사망률에서 한국이 22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은 인구 10만 명 당 91명이었고, 덴마크(1위)는 114명으로 가장 암 사망률이 높은 국가였고, 한국은 76명이었다.

[표] 암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수, 명)

국가	암 사망률	국가	암 사망률	국가	암 사망률
1.덴마크	114	9.오스트리아	96	16.미국	86
2.프랑스	108	10.캐나다	94	17.핀란드	84
3.네덜란드	108	11.노르웨이	92	18.아이슬란드	84
4.아일랜드	105	전체평균	91	19.스위스	83
5.독일	102	12.이탈리아	91	20.호주	83
6.벨기에	101	13.스페인	90	21.일본	82
7.영국	101	14.룩셈부르크	88	22.한국	76
8.뉴질랜드	99	15.스웨덴	87		

\*자료 출처: 조선일보, '한국 의료비 가장 적게 쓰며, 암사망률은 최저' 기사 참조, 2022.05.3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5/31/2ULQ5QBLFZAI3BEDXI5WGYQNW1/>)

\*\*Note : 모든 금전적 가치는 2021년 미국 달러 가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서 사용한 OECD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화(2021.11월 기준 1USD 1,145원)로 환산함.

## ◎ OECD 고소득 22개국 중 한국 ‘1인당 총 의료비’도 가장 낮아!

- ▶ 국민 1인당 총 의료비(2019년 기준)도 한국이 298만 원으로 22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은 1,253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독일은 623만 원, 일본은 507만 원으로 한국보다 두 배이상 높았다.

[표] 국민 1인당 총의료비 (OECD회원국 중 고소득 22개국 대상, 만 원)

국가	총 의료비	국가	총 의료비	국가	총 의료비
1. 미국	1,253	9. 아일랜드	618	16. 핀란드	511
2. 스위스	1,102	10. 네덜란드	609	17. 일본	507
3. 노르웨이	913	11. 오스트리아	599	18. 영국	493
4. 룩셈부르크	705	전체평균	593	19. 뉴질랜드	444
5. 덴마크	686	12. 호주	587	20. 이탈리아	333
6. 아이슬란드	675	13. 캐나다	575	21. 스페인	309
7. 스웨덴	646	14. 벨기에	566	22. 한국	298
8. 독일	623	15. 프랑스	514		

\*자료 출처: 조선일보, '한국 의료비 가장 적게 쓰며, 암사망률은 최저' 기사 참조, 2022.05.31.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5/31/2ULQ5QBLFZAI3BEDXI5WGYQNW1/>)

\*\*Note : 모든 금전적 가치는 2021년 미국 달러 가치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서 사용한 OECD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화(2021.11월 기준 1USD 1,145원)로 환산함.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499호\(2022년 6월 3주\)](#)

- MB 사면, 경제 전망, 부동산: 집값 전망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73호 \(2022년 6월 3주\)](#)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북한 인식,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 등

[민주주의와 선거 관련 인식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1.12.18.

◎ 사회 일반

[코로나 첫 해 자살률 줄었지만... 청소년은 12% 늘었다](#)

조선일보\_2022.06.14.

['현 배우자와 다시 결혼' 기혼자 10명 중 3명뿐...혼인 길수록 다른 사람 선택 ↑](#)

문화일보\_2022.06.15.

[노인학대 연 2만 건...학대 가해자 1위는 '배우자'](#)

KBS\_2022.06.15.

['나홀로' 살면 함께 사는 부부보다 사망위험 15% 높다](#)

노컷뉴스\_2021.06.16.

[한달 20일 넘게 일한 배달원 평균 374만원 벌어들여... 상위 2%는 700만원 넘어](#)

동아일보\_2022.06.18.

[2년 전 '영끌' 대출자 원리금, 올해 말 30~40% 불어난다](#)

연합뉴스\_2022.06.19.

[전셋값 뛰고 금리 올라 월세가 대세, 서민 삶은 더 팍팍](#)

중앙일보\_2022.06.18.

[숨겨진 피해자들... 연 5만 4000명 수용자 자녀가 위험하다](#)

주간조선\_2022.06.18.

["거리두기 외로워" 개 키우더니...유기견 쏟아지기 시작했다](#)

중앙일보\_2022.06.17.

['조선' 연속 꼴찌... 국제 리포트에 담긴 한국 언론 수준](#)

오마이뉴스\_2022.06.17.

[내 나이 100살, 꿈 아니다...'백세인' 9가지 필수조건](#)

연합뉴스\_2022.06.21.

◎ 청소년 / 청년

[청년 10명 중 8명, 첫 직장 떠난다...평균 2.9년만에 이직](#)

중앙일보\_2022.06.14.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고3 상위권 10명중 7명이 이과 선택...우수학생 문과 기피 심화](#)

매일경제\_2022.06.19.

[서울대 떨어진 C군, 장학금 받고 MIT 갔다...'영재' 못기르는 한국교육](#)

매일경제\_2022.06.19.

◎ **건강**

[여성은 아침운동, 남성은 저녁운동이 더 낫다](#)

한겨레\_2022.06.15.

[기후변화가 연간 44시간의 수면을 앗아갔다](#)

한겨레\_2022.06.14.

◎ **트렌드**

[BTS가 밀렸다, 임영웅 1위 만든 'A세대 파워'](#)

조선일보\_2022.06.21.

[취미생활·자기계발 트렌드 리포트 2022](#)

오픈서베이\_2022.06.

[MZ세대의 취향공동체 '태그니티'](#)

노컷뉴스\_2022.06.15.

[불편한 거 못 참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한다고?](#)

주간동아\_2022.06.15.

[건강에 관심 MZ세대 '제로 탄산' 열풍, 콜라·사이다 불티](#)

중앙일보\_2022.06.18.

◎ **국제**

[美경제학자들 "1년내 경기침체 확률 44%"...금융위기 때보다 높아](#)

연합뉴스\_2022.06.20.

["바이든 42%, 트럼프 44%"...바이든 재선도전에 '빨간불'](#)

MBN뉴스\_2022.05.18.

[전 세계 강제 이주민, "처음으로 1억 명 돌파" 외](#)

크리스찬타임스\_2022.06.18.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 기독교 / 종교

[교회학교 여름사역 본격 재개, 85%는 대면방식 추진](#)

아이굿뉴스\_2022.06.17.

['미국인 침례교에 대한 호감 가장 높아'](#)

미주 한국일보\_2022.06.14.

## ◎ 이슈큐레이션

[출산많은 1~4월도... 신생아 역대최저 8만명](#)

조선일보\_2022.06.20.

[주4일 근무제, 우리도?](#)

시사저널\_2022.06.18.

["난 슈퍼맨"...리더가 착각하는 순간 잘못된다](#)

매일경제\_2022.06.02.

###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상도중앙교회, 삼천포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학교,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탐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안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협동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권순홍,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치영, 정기묵,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차원숙,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헌,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항재, 최현갑, 한병록, 한재웅,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 신규 후원 |

서울서교회(이병렬 목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mailto: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